

지역 고객 외면받는 NC광주역점

기존 점포 3분의 1 빠져나가 이랜드 자사 브랜드만 즐비
광주사랑 진정성 못 보여줘...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미미

이랜드그룹이 지역 상생과 함께 광주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NC광주역점이 개점 1년이 넘었는데도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로 지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대적인 리뉴얼 개점이후에도 9층 식당가가 입점업체를 구하지 못해 일부 비어있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NC광주역점을 운영하는 이랜드티데일(대표이사 윤여영)은 지난 11월 전면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사실상 신규 영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40~50대 고객은 물론 20~30대 신규 고객층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소품 공간을 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모기업인 이랜드의 광주 입성이 2년이 넘었고, NC광주역점의 본격적인 개점이 1년이 다 되지만 이렇다할 성

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동안 기존 현대백화점에서 영업해왔던 일부 여성의류와 잡화, 남성매장 등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으며 계열사 브랜드인 라이프스타일숍 ‘모던하우스’ 등 대형 편집숍(특정아이템에 대한 모든 브랜드를 갖춰놓은 매장)이 대거 입점했다. 또 식당가 역시 예정보다 6개월이나 늦게 문을 연 계열사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한 곳만 문을 열고 있는 상태다.

NC광주역점으로 바뀐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백화점 1층에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명품관 ‘럭셔리 갤러리’가 들어서 버버리, 구찌, 샤넬, 페라가모 등 명품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는 것 정도다.

이에 따라 NC광주역점의 고객 수와 매장 직원 수도 변동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으로 운영됐을 당시 특수고객이었던 기아차 임·직원의 상당수가 할인 혜택이 끝나면서 인근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매장의 3분의 1이 빠져나갔으며, 젊은층 위주의 고객은 늘었지만 객단가의 하락으로 매출이 현대백화점 때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하고 럭셔리한 백화점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선호했던 3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장년층 고객의 일부도 새로 바뀐 NC광주역점의 영업전략과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일부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옛 현대백화점의 VIP 고객이었다는 정모(58)씨는 “새롭게 바뀌었다고 모처럼 왔는데 젊은층을 겨냥한 이랜드그룹 자사 브랜드만 있는 것 같아 어수선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했다.

이처럼 NC광주역점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이랜드가 광주에 진출하면서 중심고객의 타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백화점과 소품몰을 동시에 성공시키려고 했던 과욕이 불러온 패착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시기 개점한 소품몰 NC웨이브와는 달리 NC광주역점은 기존 백화점과 차별화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자사 또는 계열사의 브랜드만으로 채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는 먼저 지역민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면서 지역사회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랜드리테일측은 광주진출 2년이 다된 지난 4월에야 광주NC봉사단을 만들고 사회복지단체 등과 협약을 진행했지만 늦은감이 있다는 평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행복가득 희망적금’ 출시 전남지방우정청

전남지방우정청은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연금리 최고 7.9%(3년 만기)를 제공하는 ‘우체국 행복가득 희망적금’을 3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행복가득 희망적금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패키지’와 ‘행복 패키지’가 있으며, 3년 만기 ‘희망 패키지’에 가입하면 기본이율 2.9%(9월 3일 기준)에 희망금리 5%를 더해 최대 7.9% 이자를 준다. ‘행복 패키지’는 기본이율 2.9%(9월 3일 기준)에 행복금리 0.3%를 더하여 3.2%를 준다.

‘희망 패키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에 희망금리(5.0%)를 더해 준다. ‘행복 패키지’는 연월차, 입양자, 장기·골수 기증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에 행복금리(0.3%)를 더해 준다. ‘희망 패키지’와 ‘행복 패키지’ 모두 6개월 이상 3년 이하 기간으로, 패키지별 1인 1계좌, 1계좌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적금 가입기간 중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폐업이 발생할 때에는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성계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행복가득 희망적금은 사회취약계층과 사랑나눔 실천자 지원을 위한 공익형 상품이다”며 “서민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김장학 광주은행장(왼쪽)이 3일 광주시청을 방문, 윤장현 시장에게 ‘우리동네 사랑나눔e’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며 기부 프로그램 시

행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통해 지역사회 기부 참여하세요”

광운, 우리동네 사랑나눔e 시작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역사회 기부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사랑나눔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동네 사랑나눔e 서비스는 광주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참여 가능한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체를 할 때마다 본인이 설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기부하는 방식과 후원

금을 한꺼번에 기부하는 방식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모인 기부금을 광주전남 대한적십자사 및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아동·청소년·장애인·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이낙연 전남도지사 그리고 3일엔 윤장

현 광주시장을 각각 방문해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 보이며 기부 프로그램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김 행장은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씩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전달,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전달된 상품권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해져 이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쓰일 예정이다.

김장학 행장은 “우리동네 사랑나눔e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1.20 (-0.38)	▲ 금리 2.53%(+0.02)
▲ 코스닥 571.40 (+2.66)	▲ 환율 1020.20원(+1.70)

우리로광통신 ‘주식 보호예수 기간 단축’ 등 중기 ‘손톱 밑 가시’ 92건 뽑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애로를 초래해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됐던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이 대부분 개선됐다. 광주의 우리로광통신이 건의한 상속세 관련 사항도 해결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이들 과제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개선이 늦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안들이다. 90건은 이미 처리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광통신부품제조업체 우리로광통신은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한 보호예수 기간 단축’을 건의했고, 정부는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국내 광분배기 1위 업체인 우리로광통신은 지난해 3월 창업주였던 김국웅 회장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유족들에게 14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한 유족들은 보유 주식을 물납으로 대신하려 했으나 지난해 초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

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리로광통신의 최대 주주였던 김국웅 회장의 지분은 1년간 의무적인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됐다. 보호예수된 주식은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예외적으로 유족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물납을 허용했다. 이후 우리로광통신은 보호예수 기간의 단축을 요청하는 건의를 낸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터널통행료나 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지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떡과 참기름, 고춧가루 등 축적제조가공 식품의 배달도 허용돼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추진단은 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 애로 102건을 새로 발굴해 추가 개선 과제로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효성, 중국에 탄소섬유 ‘텐섬’ 알린다

상하이 복합재료전시회

독자기술 개발 제품 전시

효성이 3~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14 국제 복합재료산업 기술전시회(China Composites Expo 2014)’에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탄소섬유 ‘텐섬’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20회째를 맞는 중국 최대 규모의 복합재료 전시회로 전 세계 주요 탄소섬유 업체와 고객인 복합재료업체 등 5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하는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 4가지 규격의 탄소섬유와 탄소섬유가 적용된 제품을 전시한다.

효성 산업자재 PG(퍼포먼스그룹) 장인 조현상 부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탄소섬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텐섬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에 연산 2천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해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서 텐섬 브랜드를 처음 선보였다.

탄소섬유는 강철과 비교해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신소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m²**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음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m²**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5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m²(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급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53평 - 13층**
코너,전망좋은
전체 오피스, 사무실 적합
매매 - 1억5500만원
- **29평 - 12층**
양동 하천 방향
전체오피스, 주거용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

아파트형 콘도/ 별장/ 펜션 분양

문의, 010-6832-89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쌍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2층, 28평, 1세대

★ **총 55세대 (18/28/56평)**

★ **28평 - 90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대명리조트와 교환 가능

경매 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